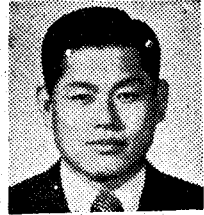


9월의 메모



전호부화장전무 김영환

1. 9월의 사육환경

차차 더위가 물러가고 초순에는 간혹 태풍이 내습 할때도 있다. 북쪽에서는 후조가 남하기 시작한다. 해 길이는 매일 2분 20여초씩 월초 13시간에서 월말 11시51분으로 감소하여 산란에 필요한 일조시간 14시간에서 크게 모자른다.

평균 기온도 8월 보다 많이 내려가 서울이 20.3도, 대구가 20.5도. 대개 맑은 날씨가 지속되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여 호흡기병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달이다.

2. 사양관리 요점

① 계두예방접종 실시——9월에 입추접종(1침)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중대추로서 아직까지 계두접종을 안한닭은 즉시 계두접종(2침)을 하여야 한다.

② 일교차 크기 때문에 호흡기병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전염성 코라이자가 계두와 병발증을 일으켜 많은 피해를 준다. 계사내의 일교차를 줄이도록 환기량을 조절한다.

③ 산란계 건강증진에 노력——여름혹서기에 100g미만 사료섭취량으로 90%정도의 산란을 하다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해도 닭은 많이 지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닭을 산란이 크게 저하하고 질병에 감염되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9월에 들어서면 닭의 사육환경을 좋게해주는 한편 양영분이 많

이들은 좋은 사료를 제한 없이 충분히 섭취하게 하여주고 항생제를 투입하여 주는것도 바람직하다.

④ 또한가지 주의 할점은 점등을 잘 해주는 일이다. 저녁 소동시간을 저녁 8시 30분 혹은 시에 고정시켜 놓고 새벽쪽으로부터 늘려나가도록 한다 점등을 잘하지 못하면 털갈이 하는 닭이 많이 나온다.

3. 시장 전망

계란값——9월은 년중 가장 계란소비 많은 달이라 계란가격은 강세를 띤다. 그러나 추석이 9월 8일에 앞당겨 찾아 온다는 것은 9월 후반기의 알값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볼때 전국의 진알생산량은 증가일로에 들어가고, 특란의 값이 좋기 때문에 노계 처분을 연 10월달에 노계 도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왔다. 전국의 계란생산량이 명년 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하므로, 노계도태는 너무 지연 시키지 않는것이 알값 유지에 이롭다.

육계가격——삼복의 성수기를 지나면서 육계 가격은 서서히 한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육계병아리 입추를 서울지방에서는 기피해 왔기 때문에 현재 서울근교에서 길러지고 있는 육계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 육계값 저락이 크지 못할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각지방에서는 의욕적으로 육계를 사육한 곳이 있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격 유지에 곤란을 받을지도 모른다.